

1.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을 저장하였다.
- ②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 ③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 ④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만들었다.
- ⑤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정답: ①

* 신석기 시대상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가장 오래된 유적은 제주도 고산리). 신석기 시대 유적은 한반도 전 지역에 고루 퍼져 있으며, 주로 큰 강 유역이나 해안 지역에서 발견된다.

신석기 시대 유적(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등)에서 발굴된 유물에는 간석기와 낚시, 바늘 등의 뼈 도구가 있다. 그리고 빗살무늬토기(아가리가 넓고 밑이 뽕족)가 널리 사용되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이보다 앞선 토기로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 등이 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뼈낚시, 그물 등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캐었고, 돌창, 돌화살 등으로 사냥을 하였다. 한편,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채취하여 먹는 생활을 하다가, 뒤에는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게 되었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에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돌괭이로 땅을 일구고 조, 피 등을 재배하여 돌낫, 뼈낫 등으로 추수를 하였으며, 돌갈판에 갈돌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며, 가락바퀴(방추차)로 실을 뽑고, 뼈바늘(골침)로 옷을 지어 입기도 하였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짚은 원형의 움집에서 살았다(양양 오산리 유적이 유명). 그리고 같은 핏줄의 씨족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나아가 몇 개의 씨족이 모여 부족을 이루었다. 즉, 이들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과 달리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사회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족장이 농사, 사냥 등 생산 활동을 지휘하였다.

② 우경은 신라 지증왕 3년(502)에 “처음으로 소를 밭가는 데 이용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적어도 6세기 이전에는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점차 확대되었다. 일반화된 것은 고려 시대이다.

③, ⑤ 철기 시대에 들어서 거푸집을 사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고,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였다.

④ 청동기 시대에는 거대한 고인돌이나 돌널 무덤을 축조하였다.

2.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가) 은/는 고구려 개마태산의 동쪽에 있다. 동쪽은 넓은 바다에 맞닿아 있다. 북쪽은 음루·부여와, 남쪽은 예맥과 접하여 있다.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을 하는데, 시신만 겨우 묻었다가 피부와 살이 썩어 없어지면 유골을 거두어 곽 안에 안치한다.

-『삼국지』동이전-

○ (나) 은/는 남쪽으로는 진한에 접하였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으니 오늘날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다. 단궁이 그 땅에서 생산되며, 그 바다에서는 반어피가 나고 또한 과하마가 난다.

-『삼국지』동이전-

- ① (가) -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② (가) -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③ (나) -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 ④ (나) -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⑤ (가), (나) -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정답: ④

* 초기국가 (가)옥저와 (나)동예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각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옥저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고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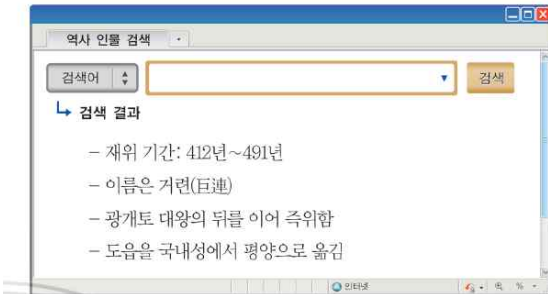
동예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③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⑤ 삼한은 다른 국가들이 제정일치(군장과 제사장이 일치) 국가 있는데 비해 제정분리의 국가였다. 이는 신성 구역인 소도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3.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수의 군대를 살수에서 크게 물리쳤다.
- ②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③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 ④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개로왕을 전사시켰다.
- ⑤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룬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위업을 계승하여 고구려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왕은 장수왕(413~491)이었다. 그는 부왕인 광개토대왕릉의 비를 세워 그 업적을 기리었고(414), 영토가 넓어지자, 다시 안으로 체제를 정비할 필요를 느낀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으로 옮기고(427), 남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였다.

이에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였는데(나제동맹: 433년). 고구려의 침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백제였다. 장수왕은 3만의 군대를 보내 백제를 쳐 개로왕을 죽이고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삼국간의 항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475). 이 때의 고구려 영토는 아산만에서 소백 산맥을 넘어 영일만을 연결하는 지역에까지 미쳤는데, 이러한 사실은 충북 충주의 중원 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 있다(481).

① 고구려 영양왕(590~618) 때에 을지문덕은 수나라 113만 대군 중 30만 별동대를 살수에서 무찔렀다(612, 살수대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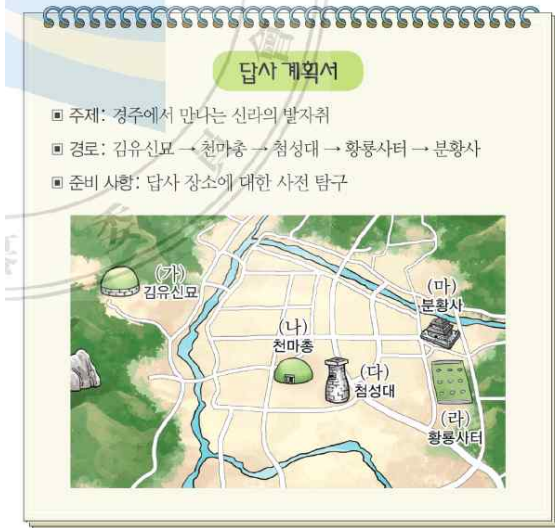
② 압록강 하류에서 요동으로 나아가는 요지인 서안평(현 중국 단둥)을 고구려 태조왕.차대왕(146), 동천왕(224) 등이 끊임없이 공격하다가 미천왕 때에 점령하였다(311).

③ 소수림왕(371~384)은 중국 전진의 승려 순도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하였다(372).

⑤ 고구려는 야심많은 당태종이 집권하자 영류왕 대(618~642)에 요하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쌓고 당의 공격에 대비하였다(631~647).

정답: ④

4. (가)~(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 무덤 돌레돌에 12지 신상을 새긴 이유를 찾아본다.
- ② (나) - 돌무지 덧널무덤의 내부 구조와 특징을 검색한다.
- ③ (다)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발견 경위를 조사한다.
- ④ (라) - 9층 목탑을 건립하였던 목적을 파악한다.
- ⑤ (마) - 모전 석탑의 제작 방식을 알아본다.

정답: ③

* 경주 지역의 문화유산

(가) **김유신 묘**: 통일신라 시대부터 봉토 주위를 돌레돌로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독특한 양식이 새롭게 나타났다. 김유신 묘가 그 대표적이다.

(나) **천마총**: 신라 경주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주로 5세기 전후로 왕권이 강화되는 마립간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껌문거리를 넣은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넷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껌문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천마도가 출토된 천마총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 **첨성대(국보 31호)**: 경주 소재. 신라 선덕여왕(632~647) 때 천체 관측을 위해 세운 건축물로 여겨진다.

(라) **황룡사 터**: 신라 최대의 사찰인 황룡사는 진흥왕 때에 건립되었고(553~569), 선덕여왕 때 대국통인 자장(590~658)은 주변 9개 민족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하여 황룡사 9층 목탑 건축을 건의하여 지어졌다고 한다(643~645). 그러나 몽골의 3차 침입 때(1238)에 황룡사 9층 목탑이 불에 타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마) **분황사 터**: 분황사는 634년(선덕여왕 3)에 창건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신라의 석탑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또한 분황사탑은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모전 석탑),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 있다.

③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초(751)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 인쇄물이다.

5.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왕 16년 봄, 사비(일명 소부리라고 한다)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

(나) 왕 32년 가을,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는데, 신라 북병과 만나 싸우다가 신라군에게 살해되었다.

- 『삼국사기』 -

- ① 지증왕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 ② 근초고왕이 마한을 정벌하였다.
- ③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하였다.
- ④ 무령왕이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⑤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정답: ⑤

* 백제 성왕에 대하여

백제 성왕(523~554)은 수도를 비좁은 웅진성에서 넓은 별판인 사비성(부여)으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538). 이 때, 중앙에 22개의 실무 관청을 두고, 수도에 5부, 지방에 5방을 두어 왕권의 강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불교를 장려하고, 중국과 문물을 교류하였으며, 왜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 불교를 비롯한 여러 문물을 전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힘을 합하여, 이전에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을 수 있었다(551). 이리하여 백제는 오랜 숙원을 한때 이루었으나, 곧 동맹국인 신라 진흥왕의 공격을 받아 한강 하류의 땅을 신라에 빼앗겼다(553).

이에 성왕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관산성(충북 옥천)에서 전사하여 중흥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554).

① 신라 지증왕(500~514)은 이사부 장군을 시켜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512).

②, ③ 백제 근초고왕(346~375)은 마한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하여 평양성까지 쳐들어가 고국원왕(331~371)을 전사시켰다.

④ 백제 웅진 시기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6.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특별 기획전

사진으로 보는
철의 왕국, (가)

김수로왕이 건국하였다고 전해지는 (가) 은/는 풍부한 철을 이용하여 수준 높은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나라의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기간: 2017년 ○○월 ○○일 ~ ○○월 ○○일
■ 장소: △△ 박물관 특별 전시실



정답: ④

* 금관가야의 문화유산

금관 가야는 건국 설화에 의하면, 신라 때인 42년(유리왕 19) 오늘날 김해의 구지봉에 하늘에서 황금알이 내려와 수로왕 등 6명의 가야국 시조가 탄생하였다고 전해진다.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은 부족장 9명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다고 한다(42).

금관 가야(대성동 고분에 많은 문화유산 출토)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철을 중국의 군현(낙랑)과 왜에 수출하는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해상왕국으로 번영을 누리 낙동강 하류의 여러 가야를 대표하는 맹주국으로 등장하였다.

① **철지도**: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대에 백제에서 만들어 일본에 보낸 철지도는 강철로 만들고 금으로 글씨를 상감해 새겨 넣은 우수한 제품이다. 이소노가미 신궁 소장.

② **하남 하사창리 철불**(보물 332호): 1m 대좌 위에 2.8m 높이의 대형 철불. 고려 초기의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적 철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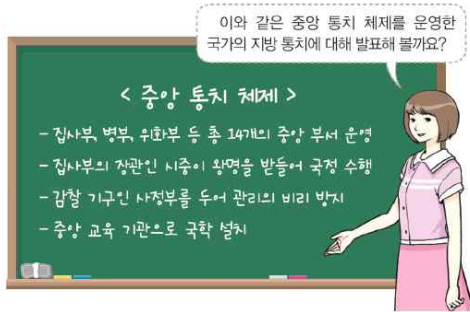
③ **성덕대왕 신종**(일명 에밀레 종, 국보 29호): 경주 소재. 해공왕(771) 때에 만들어진 이 종은 비천상 무늬와 구리와 주석이 환상적인 비율(82:13) 만들어져 신비한 종소리로 유명하다. 이는 당시 신라의 금속 주조 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 **대성동 57호분 출토 종장 판갑옷**

⑤ **호우명 그릇**: 경주의 호우총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 그릇 밑 바닥에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호우십)”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 준다.

7.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했어요.
- ② 경재소를 설치하여 유향소를 통제했어요.
- ③ 국경 지역인 양계에 병마사를 파견했어요.
- ④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했어요.
- ⑤ 각 도에 관찰사를 보내 관할 고을의 수령을 감독했어요.

정답: ④

* 통일 신라기의 지방통치제도

통일 후 신라는 중앙 집권 체제로 제도를 재정비하여 집사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료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집사부 시중의 지위를 높였고, 그 아래에는 위화부를 비롯한 13부를 병렬적으로 두어 행정 업무를 분담하게 하였다.

또한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신문왕 때에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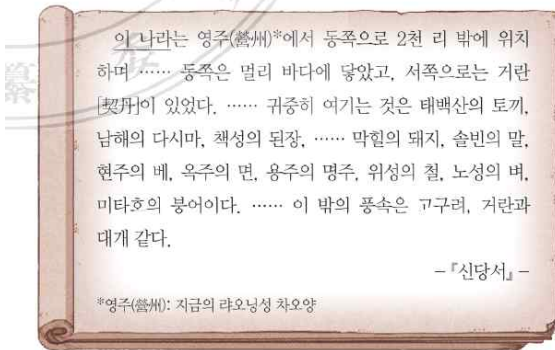
지방행정 조직은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여 중앙 집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군사·행정상의 요지에는 소경을 설치하여, 수도인 금성(경주)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고, 각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였다. 군사적 기능보다 행정적 기능을 강화하여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 아래에는 군이나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그 아래의 촌은 토착 세력인 촌주가 지방관의 통제를 받으면서 다스렸다. 또, 향, 부곡이라 불리는 특수 행정 구역도 있었다. 한편,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일정기간 서울에 와서 거주하게 하는상수리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①, ③ 고려는 성종 때에(983) 처음 12목을 설치한 이후 현종 때에 5도 양계의 지방제도를 완성하였다(1018). 일반 행정 구역인 5도에는 안찰사를, 국경 지역인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②, ⑤ 조선은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지방 사람들의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중앙의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경재소를 설치하였다.

8. 밑줄 그은 '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통해 신라와 교역하였다.
- ②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을 널리 재배하였다.
- ③ 해동통보를 발행하여 금속 화폐의 통용을 추진하였다.
- ④ 농사직설을 간행하여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하였다.
- ⑤ 삼포를 열어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해약조를 체결하였다.

정답: ①

* 발해의 경제

발해는 9세기에 이르러 사회가 안정되면서 농업, 수공업, 상업이 발달하였다. 농업에서는 밭농사가 중심이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지었다. 특히, 목축이 발달하여 돼지, 말, 소, 양 등을 길렀는데, 말은 주요한 수출품이었다(솔빈부의 말이 유명), 수렵도 활발해 모피, 녹용, 사향 등도 많이 생산되어 수출되었다. 수공업은 철, 구리, 금은 등 금속 가공업과 삼베, 명주, 비단 등의 직물업, 도자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하였다. 그리고 수도인 상경 용천부등 도시와 교통 요충지에서는 상업이 발달하였다.

발해는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하였다. 특히, 당과는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무역을 하였는데, 당은 산둥 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하고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일본과의 무역도 규모가 한 번에 수 백명이 오갈 정도로 활발하였다. 신라와는 상설 교통로인 신라도를 개설하여 견직물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경제 교류가 있었다.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모피, 인삼 등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이었다. 수입품은 귀족의 수요품인 비단, 책 등이었다.

② 조선 후기에는 외국에서 전래된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널리 재배되었다.

③ 고려 숙종(1095~1105)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어 통용을 추진하였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④, ⑤ 조선 전기 세종 때에 농사직설(1429)을 간행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이 장려되었고, 일본에 3포를 개항하고(1426), 계해약조(1443)를 체결하여 제한된 범위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9.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문화유산 카드

●종목: 국보 제57호

●장소: 전라남도 화순군 쌍봉사

●소개: 철감선사 도훈의 사리를 모신 팔각 원당형의 승탑으로 뛰어난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신라 하대 선종의 유행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화유산이다.

(가)



정답: ①

*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신라 하대에는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부도)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팔각원당형을 기본형으로 삼고 있는 승탑의 대표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868)'이 유명하다.

② 불국사 다보탑(국보 20호): 경주 소재. 8세기 중엽 통일신라기에 불국사에 세워진 탑으로 역사적 부처인 석가여래가 법화경을 설법하자, 과거불인 다보여래가 나타나 석가여래의 말이 참됨임을 입증한 것을 구현한 것이다. 복잡하고 화려한 특징을 보여준다.

③ 부석사무량수전 앞 석등(국보 17호): 높이 2.97m. 신라시대의 전형적인 팔각석등으로 상하 비례의 교묘함이나 조각의 정교함에서 신라시대 석등 중에서도 손꼽히는 걸작.

④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국보 12호): 전체 높이 6.4m로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커다란 규모이다. 이 석등은 통일신라 헌안왕 4년(860)에서 경문왕 13년(873)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석등 뒷편 각황전의 위용과 좋은 조화를 보여준다.

⑤ 월정사 8각 9층 석탑: 강원도 평창(오대산) 소재. 통일 신라 때의 4각 3층 석탑을 넘어서 다소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다각다층탑이 고려 전기에 유행하는데 그 전형을 보여 준다. 즉 당시 송나라의 선진문물이 수용되며 송나라에서 유행하던 8각탑이 수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0. (가), (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은/는 본래 신라의 왕자로서 도리어 제 나라를 원수로 삼아 심지어는 선조(先祖)의 화상(肖像)을 갈로 베었으니 그 행위가 매우 이질적 못하였다. (나) 은/는 신라의 백성으로서 신라의 녹을 먹으면서 세력을 키우다가 화(禍)를 일으킬 마음을 품고 (신라의) 도읍을 침범하여 임금과 신하를 살해하니 (그 행위가) 마치 짐승과 같았다. 참으로 천하의 으뜸가는 악인이로다. 그러므로 (가) 은/는 그 신하로부터 버림을 당하였고, (나) 은/는 그 아들에게서 화가 생겨났으니 모두 스스로 불러들인 것인데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 『삼국유사』 -

- ① (가) - 원신주를 도읍으로 하여 후백제를 세웠다.
- ② (가) -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 ③ (나) - 송악을 도읍으로 정하고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 ④ (나) - 서경을 중시하여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 ⑤ (가), (나) - 황산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정답: ②

* 궁예와 견훤

(가) 궁예: 신라 왕족의 후예로서, 처음에는 북원(원주) 지방의 양갈이 휘하에서 도적 집단을 토대로 성장하여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중부 지방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예성강 유역의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그는 세력이 커지자,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독립하여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그 후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연호: 무태)로 바꾸었다(904). 다시 태봉(연호: 수덕만세->정개)으로 바꾸며(911) 황제국의 면모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려고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어들였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 신하들에 의하여 축출되었다(918).

(나) 견훤: 상주의 군인 출신 견훤은 황해안의 해상 세력과 도적 떼 등을 자신의 군사 기반으로 흡수하여 자립하였다. 견훤은 나주를 거쳐 무진주(광주)를 점령한 후 북상하여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그는 중국(후당, 오월)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국제적 감각도 갖추었다.

그는 927년 대야성을 점령하고 이어 신라 수도 금성을 급습하여 포석정에서 경애왕을 자결케 하였고, 신라를 도우러 온 왕건의 고려군을 공산(대구) 전투에서 대패시켰다. 그러나 왕건의 고려는 신라인의 신망을 얻었고, 그 결과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할 수 있었다(935).

한편 후계 문제를 놓고 그와 같던 만아들 신검이 배다른 형제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하자 견훤은 탈출하여 고려로 귀순하였고, 후백제 정벌에 앞장섰다. 결국 일리천 전투와 황산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은 신검의 후백제군을 크게 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고, 견훤도 곧 사망하였다(936).

④ 고려 태조(918~943)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욕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11.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중군(中軍) 김부식이 아뢰기를, “윤언이는 정지상과 결탁하여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당(黨)이 되어 크고 작은 일마다 실제로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또한 임자년에 왕께서 서경으로 행차하실 때, 글을 올려 연호를 세우고 황제로 칭하기를 청하였습니다. …… 이는 모두 금나라를 격노하게 하여 이때를 틈타 방자하게도 자기 당이 아닌 사람을 처치하고 반역을 도모한 것이니 신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① 원종과 애노가 사별주에서 붕기하였다.
- ②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이 되었다.
- ③ 용천주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 ④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하였다.
- ⑤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정답: ⑤

* 고려 인종 때의 역사적 사실

고려 전기 최대의 문벌귀족인 경원 이씨 이자겸은 딸들을 예종(1105~1122)과 인종(1122~1146)의 왕비로 두어 최고의 권력자로 행세하다 국왕의 자리까지 넘보기에, 왕위 유지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이자겸의 반격을 받아 궁궐이 불타는 등 위기에 처했다. 이를 이자겸의 난이라 한다(1126).

그러나 얼마 후 인종은 이자겸의 부하인 척준경을 시켜 이자겸을 제거하였고, 척준경도 탄핵을 받고 축출됨으로써 이자겸 세력은 몰락하였다. 이자겸의 난은 중앙 지배층 사이의 분열을 드러냄으로써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자겸의 난(1126)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과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관리들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 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하였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① 신라 말 진성여왕(887~897) 때에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889년)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② 고려 태조(918~943)는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력 호족 출신 중앙 관료를 출신 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직 등의 일을 맡게 하는 사심관 제도(귀부한 신라 경순왕을 경주 사심관 삼음이 효시)를 실시하였다.

③ 신라 말 헌덕왕(809~826) 때에 아버지 김주원(무열왕계)이 김경신(원성왕계)에게 왕위쟁탈전에 패하자, 그 아들인 웅주(공주)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822).

④ 강조는 어지러운 고려 왕실을 바로잡고자 정변을 일으키어 전횡을 일삼던 천추태후와 김치양을 제거하고,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즉위시켰다(1009)

12.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흑창을 처음 설치하여 민생을 안정시켰어요.
- ② 국자감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 진흥에 힘썼어요.
- ③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호족 세력을 견제했어요.
- ④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했어요.
- ⑤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했어요.

정답: ③

* 고려 광종의 업적

고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은 혜종(943~945)과 정종(945~949) 때에는 왕권이 불안정하여 왕자들과 외척들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났다(예: 왕규의 난).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949~975)은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958),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으며,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960).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된 광종은 본격적으로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왕조 성립 초기의 공신과 호족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다.

①, ④ 고려 태조(918~943)는 흑창(춘대추납)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고,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② 고려 성종(981~997)은 국자감을 정비하여 (또는 설립)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⑤ 고려 경종(975~981)은 관리들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인품과 관품에 따라 수조권 토지를 분급하는 전시과 제도를 처음 마련하였다(시정 전시과, 976).

13.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민영(閔瑛)은 사람됨이 호방하며 의협심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매와 개를 데리고 사냥하고 말을 달려 격구(擊毬)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그의 부친 민효후가 동계 병마판관이 되어 적에 맞서 싸우다 사망하였다. 그는 이를 한스럽게 여겨 복수를 하여 부친의 치욕을 갚으려 하였다. 때마침 예종이 동쪽 오랑캐를 정벌하려 하자, 민영은 자청하여 (가)의 신기군에 편성되었다. 태번 군대의 선봉이 되어서 말을 타고 돌격하여 적군을 사로잡고 물리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 민영 묘지명 -

- ① 경대승에 의해 설치된 숙위 기관이었다.
- ②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 9성 일대를 확보하였다.
- ③ 진도에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하였다.
- ④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조직되었다.
- ⑤ 9주에 1정씩 배치되고 한주(漢州)에만 1정을 더 두었다.

정답: ②

* 여진 정벌과 별무반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 숙종 대에 취약한 기병을 보완하자선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기(기병).신보(보병).항마(승병)군으로 구성된 별무반(1104)을 편성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① 정중부 무신 정권을 타도한 경대승(1179~1183 집권)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숙위 사병으로 도방을 설치하였다(1179).

③, ④ 도방은 최충헌 정권에도 이어져 신변 경호를 담당하였고, 최충헌을 계승한 최우는 삼별초라는 또 다른 사병기구를 두며(1219) 최씨 정권의 권력 기반이 되었다. 특히 삼별초는 항몽투쟁에 앞섰고, 개경환도에 반대하여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항쟁하였다(1270~1273).

⑤ 통일신라기의 지방군으로는 10정을 두었는데, 9주에 1 정씩 배치하고, 북쪽 국경 지대인 한주(한산주)에는 2정을 두었다.

14. 밑줄 그은 '그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 ②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 ③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 ④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서 개혁을 이끌었다.
- ⑤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정답: ②

* 최충헌에 대하여

최충헌은 전임 집권자 이의민을 타도하고 정권을 잡자(1196~1219 집권), 무신 정권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 개혁책을 제시하는 한편, 농민 항쟁의 진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사회 개혁책은 흐지부지되고, 그는 오히려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사병을 양성하여 권력 유지에 치중하였다.

최충헌은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1209)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 사병 기관인 도방을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하였다. 도방은 이후의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① 최충헌의 뒤를 이은 최우는 1225년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며 왕권을 제약하였다.

③ 승려 출신의 장수 김윤후((?~?))는 몽골의 2차 침입(1232) 때 처인(용인) 부곡민을 이끌고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며 무찔렀다.

④ 고려 말 공민왕(1351~1374)은 무당파인 승려 신돈(?~1371)을 시키어 전민변정도감(1366)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에 의해 부당하게 검병당한 토지와 강압에 의해 노비가 된 사람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 하였다.

⑤ 거란의 3차 침입(1018~1019)을 막아낸 후 강감찬(948~1031)의 건의에 개경 주위에 나성을 쌓았다.

15.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 ②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 ③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 ④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 ⑤ 최충이 9재 학당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답: ④

* 원의 간섭기(1270~1351) 때의 사회상

몽골과 강화(1270)한 이후, 고려는 두 차례 (1274, 1281) 실시된 원의 일본 원정에 군대와 물자의 제공을 강요받았다. 또, 철령 이북에 쌍성총관부, 자비령 이북에 동녕부, 제주도에는 탐라총관부라는 원의 통치 기구가 설립되어 넓은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였다.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여 원 황제의 부마가 되었고, 왕실의 호칭과 격이 부마국에 걸맞은 것으로 바뀌었다(폐하->전하, 태자->세자, ..조.종->충..왕). 아울러 관제도 개편(중서문하성+상서성->첨의부, 6부->4사, 중추원->밀직사)되고 격도 낮아졌다.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정동행성(1280)을 계속 유지하여 내정 간섭 기구로 삼았고, 군사적으로는 만호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군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하고 순마소(경찰 기능)를 통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한편, 원은 공녀라 하여 고려의 처녀들을 뽑아 갔으며(결혼도감 주관), 금, 은, 베를 비롯하여 인삼, 약재 등 특산물을 징발하여 농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또, 매를 징발하기 위해서 응방이라는 특수 기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원과 강화를 맺은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많아졌고,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에는 몽골풍(소주, 설령탕)이 유행하여 변발, 몽골식 복장(호복, 연지, 족두리, 장도), 몽골어(수라, ~치)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① 무신정권 최충헌 집권기에 그의 노비인 만적은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 차별에 항거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1198).

② 통일신라기 원성왕(780~798) 때에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788)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③ 11세기에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의천(1055~1101)은 교관겸수를 부르짖으며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⑤ 고려 중기 문종 때에 최충(984~1068)은 9재 학당을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

1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최영이 백관(百官)과 함께 철령 이북의 땅을 떼어 줄지 여부를 논의하자 관료들이 모두 반대하였다. 우왕은 홀로 최영과 비밀리에 요동을 공격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최영이 이를 권하였다.

(나) 배극렴 등이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자 태조는 “예로부터 제왕의 흥기(興起)는 천명이 있지 않으면 불가하다. 나는 실로 부덕한 사람인데 어찌 감히 왕위를 감당하겠는가?”라며 결국 불응하였다. 신하들이 왕위에 오르기를 거듭 권하니 마침내 태조가 즉위하였다.

- ①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이 제정되었다.
- ② 대표적 친원 세력인 기철이 숙청되었다.
- ③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하였다.
- ④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 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신문고가 설치되었다.

정답: ①

* 최영의 요동 정벌(1388)과 이성계의 즉위 사이의 역사적 사실(1392)

고려 말 공민왕, 우왕 때에 남과 북의 외적에 대한 토벌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는 큰 전과를 올려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 우왕 때에 이르러 권문세족이 토지 겸병을 확대하자, 최영(1316~1388)이 이성계(1335~1388)를 위시한 사대부 세력의 뒷받침을 받아 이인임 일파를 축출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마침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4불가론을 주장하며 위화도에서 회군하여(1388)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급진 개혁파(혁명파)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잇따라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후(1389), 조준 등의 건의로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하였다(1391). 이를 바탕으로 이성계와 급진 개혁파 사대부 세력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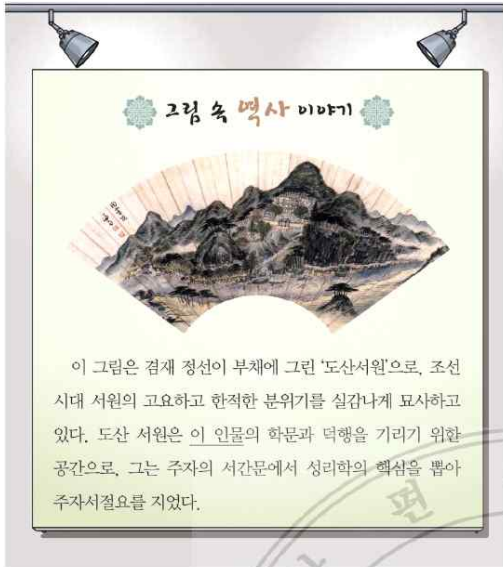
②, ④ 공민왕(1351~1374)은 반원자주정책을 실시하여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을 숙청하,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1356).

③ 고려 무신 정권 초기 공주 명학소에서는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하였다(1176). 이들은 한때 충청도 일대를 점령했으며, 개경까지 공격하려고 하였다.

⑤ 조선 태종(1400~1418)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 위에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17. 밑줄 그은 '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 ② 성호사설에서 한전론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 ③ 동호문답을 통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④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를 저술하였다.
- ⑤ 가례집람을 지어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정답: ④

* 도산 서원을 세운 이항에 대하여

동방의 주자라 불리우는 이항(1501~1570)은 주자서절요(주자의 주요 서찰을 뽑아 정리), 성학십도(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를 것을 도식으로 설명) 등을 저술하였으며,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시켜 나름대로의 이기심성론을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의 사상은 주리(主理論)에 입각하여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항의 사상은 임진왜란 이후 그의 저서 '주자서절요'가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다.

실천적으로는 서원과 향약의 보급에 힘써, 풍기군수 재직시 주세붕이 창설한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을 청원하여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탄생하였으며, 도산학당(후일 도산서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예안향약을 보급하였다.

② 중농적 실학자 이익(1681~1763)은 '성호사설' 광우록에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가구당 최소 기본 토지인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그 외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③ 이이(1536~1584)는 '동호문답'을 저술하여 수미법 등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⑤ 성리학자인 김장생(1548~1631)은 예학을 학술적 연구하여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하고 여러 학자들의 예설에 주석을 붙인 '가례집람'을 저술하였다.

18.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세종 이래 정치와 교화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예악(禮樂)이 제정되어 태평스런 시대를 빛내게 되자, 글 잘하고 절의를 지닌 선비들이 조정으로 모여들었다. 그때에 여러 왕자들이 다투어 빈객들을 맞아 들였는데, 문인(文人)과 재사(才士)들이 모두 안평 대군에게 의탁하여 (가)에게는 이들보다 나은 인재들이 없었다. 한명회가 (가)을/를 찾아가 신임을 얻게 되자 은밀하게 계책을 올리기를, "세도(世道)에 변고가 있을 때에는 문인들이 쓸모가 없으니 모름지기 무사들과 결탁하소서."라고 하였다.

—『연려실기술』 단종조 고사본말 —

- ① 계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②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 ③ 금위영을 설치하여 5군영 체제를 완성하였다.
- ④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반대파를 제거하였다.
- ⑤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국 기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정답: ①

* 수양대군(세조)에 대하여

세종 이후 문종이 일찍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곧,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에게 정치의 실권이 넘어가고,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한명회. 권람, 무인 집결)과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문사들 집결) 간의 권력 갈등은 심화되었다.

결국 수양대군은 계유정난(1453)을 일으켜 김종서, 황보인 등의 대신들과 안평대군을 제거하며 정권을 장악하고 단종의 양위를 받아 후일 세조로 왕위에 올랐다(1455).

② 정도전(1342~1398)은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의 진리를 논파하고 배척을 주장한 '불씨잡변'(1394)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③ 숙종(1674~1720)은 5군영 중 마지막 군문인 금위영(궁궐방위)을 설치하였다(1682).

④ 조선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인 이방원(태종)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1398, 1400)을 통해 반대파를 제거하며 왕위에 올랐다

⑤ 흥선 대원군의 집권기(1863~1873)에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정치)와 삼군부(군국기무)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19.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으로 옳은 것은?

[1점]

세시 풍속 체험 프로그램 안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새봄을 알린다는 (가)은/는 단청절(踏靑節)이라고도 하여 들판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 물을 밟으며 봄을 즐기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2017년 ○○월 ○○일 10:00 ~ 17:00

2. 장소: △△문화원 야외 체험장

3. 체험 프로그램

- 노랑나비 날리기 - 이날 노랑나비를 보면 길하다는 속설에 따라 살아있는 노랑나비를 날려 보내기
- 화전 만들기 - 진달래꽃으로 장식한 화전 부치기
- 풍각사놀이 - 각시풍을 추려서 한쪽 끝을 실로 묶어 머리채를 만든 다음 나뭇가지에 묶어 인형처럼 가지고 놀기

△△문화원

① 단오

② 칠석

③ 대보름

④ 삼짇날

⑤ 한가위

① 단오(端午): 음력 5월 5일. 삼한 시대의 수릿날에 기원하여 한해 농사의 풍성을 기원한다 단오의 풍속 및 행사로는 창포물에 머리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단오장이라 하여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 삼아 머리에 꽂는 등의 풍속과 함께 그네뛰기, 활쏘기, 씨름 같은 민속놀이 등이 행해졌다.

② 칠석(七夕): 음력 7월 7일. 헤어져 있던 견우(牽牛: 목동)와 직녀(織女: 베짜는 녀)가 만나는 날이라고도 한다. 이 때는 옷과 책을 햇볕에 말리는 폭의(曝衣)와 폭서(曝書) 풍속이 있었다. 여름 장마철에 장롱속의 옷가지와 책장의 책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끼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여인들이 직녀성에 바느질 솜씨를 비는 걸교(乞巧) 풍속이 있었다.

③ 대보름: 음력 1월 15일. 일명 상원(上元)으로 불리운다. 한해의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의미로 쌀, 조, 수수, 팥, 콩 등을 섞어 지은 오곡밥을 먹고, 건강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땅콩이나 잣, 호두, 밤 등 부럼을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물며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일년 내내 기쁜 소식만 전해달라며 부녀자 애들 할 것 없이 귀밝이술(耳明酒)을 마신다.

⑤ 한가위: 음력 8월 15일. 추석(秋夕)으로 불리우며 일 년 동안 기른 곡식을 거둬들인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상을 차려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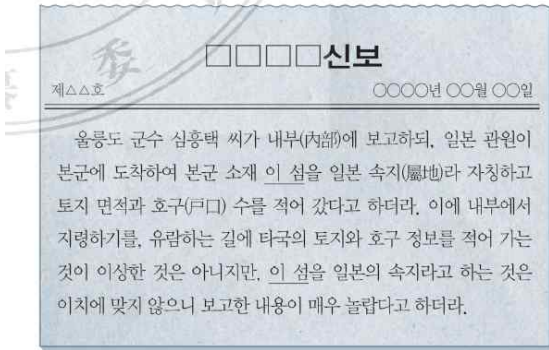
정답: ④

* 삼짇날의 세시풍속

음력 3월 3일인 삼짇날에는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는다는 때로, 이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이 때에는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을 발라 지지는 화전(花煎)을 먹거나,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다음 가늘게 썰어 꿀을 타고 잣을 넣어서 먹는 화면(花麵)을 즐겨 먹는다.

20. 밑줄 그은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 ②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
- ③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하여 조차를 요구하였다.
- ④ 네덜란드 상인인 하멜 일행이 표류하여 도착하였다.
- ⑤ 정약전이 섬의 어종을 조사하여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정답: ②

* 독도의 역사

독도는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를 통하여 우산국을 정벌했음과 세종실록지리지 등을 통해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였으나, 조선 초기에 유민을 막기 위해 울릉도민들을 본토에 옮겨 살게 하여 한때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였다. 그러나 우리 어민들은 고기잡이를 하는 거점으로 줄곧 활용해 왔다.

특히, 조선 숙종 때에는 동래에 살던 안용복은 1696년 독도에서 일본인을 내쫓고 일본 막부에 항의하여 1697년 에도 막부는 울릉도에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신을 조정에 보내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그 후에도 일본 어민의 침범이 계속되자, 19세기 말에 조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서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대한제국 때인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를 관할케 하였다(대한제국 정부 칙령 41호를 관보를 통해 공포).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인 1877년 당시 일본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이 <태정관 지령문>을 통해 울릉도와 이 섬을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으나, 러·일 전쟁 중 자국 영토(시마네현)로 불법적으로 강제 편입하였다(1905.1).

이에 1906년 3월 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국왕에게 보고를 올리자,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동년 5월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부인, 즉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다행히 1952년부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독도 의용수비대장 홍순철의 활약)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국 영토임을 부르짖으며 끈질기게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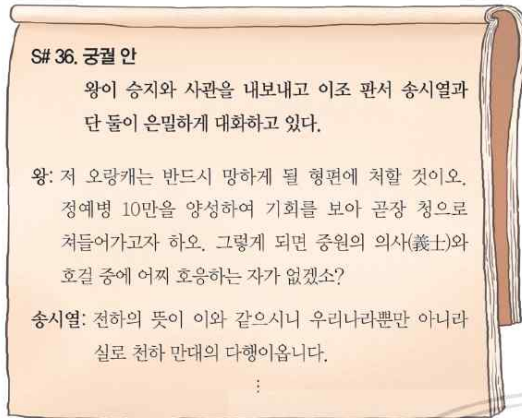
① 병인양요(1866.9) 때에 양헌수가 거느린 군대는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③ 러시아가 저탄소를 빌미로 조차하려고 한 곳은 부산 절영도이다(1897).

④ 네덜란드 상인 하멜 일행이 표류해 도착한 곳은 제주도이다(1653).

⑤ 신유사옥(1801)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용의 형 정약전(1758~1816)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21.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신무기인 신기전이 개발되었다.
- ②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가 동원되었다.
- ③ 국왕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조직되었다.
- ④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 ⑤ 명의 요청으로 강홍립의 부대가 파병되었다.

정답: ②

* 북벌을 주도한 효종의 업적

인조(1623~1649) 때에 정묘(1627), 병자(1636) 두 차례의 호란으로 큰 피해를 입은 조선은 정부나 백성 모두가 청에 대한 적대 감정과 복수심에 불탔다. 이에 청을 쳐서 원수를 갚아야한다는 북벌론이 일어났다.

특히, 청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효종 (1649~1659)은 북벌을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다. 효종은 송시열(1659년 독대와 북벌 유명), 이완 등과 함께 남한산성 및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군대의 양성에 힘을 기울였으나, 북벌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이는, 청이 한족의 반발을 누르면서 중국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만주 북부의 헤이룽 강 부근에 러시아가 침략해 오자, 청은 이를 물리치기 위해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두 차례(1654, 1658)에 걸쳐 조총 부대를 출병시켜 큰 전과를 올렸다. 이를 나선 정벌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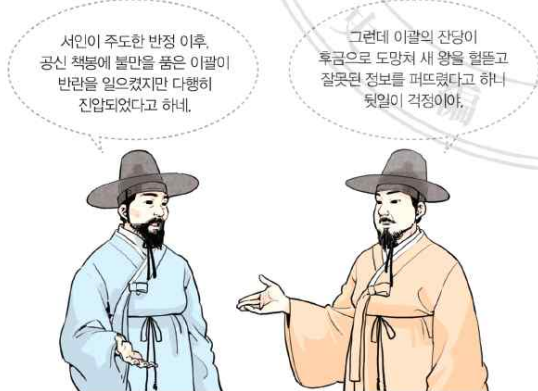
① 세종(1418~1450) 대에 바퀴가 달린 화차에 신기전(1448)을 장착하여 화살 100개를 잇따라 발사할 수 있었다.

③ 정조(1776~1800)는 국왕 친위 부대로 장용영(장용위:1785->장용영:1793)을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④ 고려 말 우왕(1374~1388) 대에 최무선의 끈질긴 노력을 하여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자, 정부는 화통도감을 설치하여(1377), 최무선을 중심으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고,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1380).

⑤ 광해군(1608~1623) 대에 명의 요청으로 후금을 토벌키 위해 심하(深河)에 강홍립과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적당히 싸우다 항복하는 중립외교를 펼쳤다(1619).

22. 다음 가상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쳤다.
- ② 김종서가 여진을 몰아내고 6진을 개척하였다.
- ③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었다.
- ④ 기유약조의 체결로 일본과의 국교가 재개되었다.
- ⑤ 정묘호란이 일어나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정답: ⑤

* 정묘호란(1627)

인조반정(1623)을 주도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또한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 평안도에 주둔 하였던 이괄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 (1624)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자, 그 잔당들이 후금으로 피신하여 조선 침입을 종용하자, 후금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왔다(1627). 이를 정묘호란이라 한다. 정봉수와 이립 등은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적을 맞아 싸웠다. 특히, 정봉수는 철산의 용골산성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후금의 군대는 보급로가 끊어지자 강화를 제의하여 형제관계의 화의와 조공과 국경에서의 관무역을 조건으로 철군하였다.

① 임진왜란 때에 광주 목사 권율이 군민들과 필사적으로 싸워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행주대첩, 1593.2, 행주치마 유래).

② 세종(1418~1450) 때에는 최윤덕 장군을 시켜 압록강 상류 지역을 확보하여 북서 4군을 설치하고(1443), 김종서 장군을 시켜 두만강 하류 일대까지 확보하여 동북 6진을 설치하였다(1449).

③ 중종 때에 현량과로 진출한 진출한 조광조를 필두로 하는 신진 사람들이 급진 개혁(훈구파 위훈삭제 등)과 관련하여, 남곤, 심정 등의 훈구 세력의 '주초위왕' 모략으로 축출되었다(기묘사화, 1519)

④ 임진왜란 후 1609년(광해군 원년)에 대마도주와 기유약조(세견선 20척, 세사미 100석 이내)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국교가 재개되며 부산에 왜관이 설치되었다.

2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 ②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를 거두었다.
- ③ 어세, 염세, 전세를 군역청에서 관할하게 하였다.
- ④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 ⑤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정답: ④

* 공납의 개혁 대동법

조선 후기들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농민들의 공납(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고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에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고(1608, 이원익의 건의),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1659년 김육의 건의로 삼남 지방으로 확대, 1708년 완결, 평안.함경도와 제주도 제외).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 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상공만 폐지,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존속). 주무 관청은 선혜청이다.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또한 조세를 현물 징수에서 쌀, 베, 돈으로 대신됨으로 조세의 금납화를 촉진하였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① 흥선 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하여 종래 상민에게만 거둬들이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였다(1871).

② 조선 후기에는 풍흉에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③, ⑤ 조선 후기 군역의 개혁인 군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어세.염세.전세를 군역청에서 관할케 하는 보충책으로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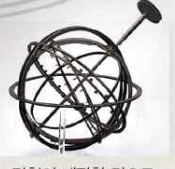
24.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제△△호
○○○○년 ○○월 ○○일

□□신문

담헌(湛軒), 소행성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국내 연구진이 발견한 새로운 소행성에 대해, 호가 담헌인 그의 인명을 헌정하여 국제천문연맹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인명이 헌정된 이유는 그가 무한 우주론과 지전설 등을 주장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과학자이자 실학자이기 때문이다.

담헌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혼천의

- ①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 ② 북학의에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강조하였다.
- ③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지적하였다.
- ④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 ⑤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정답: ④

* 북학파 실학자 홍대용

홍대용(1731~1783)은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기술의 혁신과 문벌제도의 철폐, 그리고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손수 혼천의를 만들어 천체를 관측하여 그의 문집 담헌서의 <의산문답>에서 지구가 하루에 한번씩 돈다는 지전설을 주장하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①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1762~1836)은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퍼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어 정조가 수원 화성을 쌓을 때에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② 북학파 실학자 박제가(1750~1805)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상공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③ 북학파 실학자 박지원(1737~1805)은 청에 다녀온 기행문인 <열하일기>와 <양반전>, <허생전> 등의 한문 소설을 써서 양반 사회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실용적 태도를 강조하였다.

⑤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인 유수원(1694~1755)은 <우서>를 저술하여 농업의 전문화와 상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며,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25. (가)~(마) 지역에 대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 - 반구대 암각화로 보는 선사 시대 생활
- ② (나) - 고액 소작료에 반발한 암태도 소작 쟁의
- ③ (다) - 신립 장군이 배수의 진을 친 탄금대 전투
- ④ (라) - 신미양요의 발단이 된 제너럴 셔먼호 사건
- ⑤ (마) - 벽란도에서 이루어진 고려와 송의 국제 무역

정답: ③

* 여러 지역들의 역사

① 울주(울산) 반구대의 바위 그림에는 거북, 사슴, 호랑이, 새 등의 동물과 작살이 꽂힌 고래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고래, 그물에 걸린 동물, 우리 안의 동물 등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선사 시대의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과 풍성한 수확을 비는 것으로 보인다.

② 1923년의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 소작 쟁의(암태 소작회 주도)는 한국인 지주와 일본 경찰에 맞서 1년간 싸워 소작료 인하를 관철 시킨 소작쟁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③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파죽지세로 북상해 오자, 조선 정부는 삼도순변사로 신립 장군을 보내어 충주에서 방어선을 펼쳤다. 신립은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며 그들의 북상을 막으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강물에 투신 자결하였다.

④ 신미양요(1871.6)의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상륙하여 약탈을 하다 평양 군민들에 의해 불태워진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 사건은 1866년 7월 평양 대동강에서 일어났다.

⑤ 고려 시대에는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송, 요 등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졌다. 개성 인근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여 아라비아(대식국) 상인들도 들어와 수은, 산호, 향료 등을 팔았다.

26.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의정부와 별도로 (가) 을/를 설치하여 재신들 중 군무(軍務)를 아는 자로 당상을 삼아 변방의 일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조정의 명령이 부득불 모두 (가) (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의정부의) 찬성, 참찬은 신병 치료나 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 『연려실기술』 -

- ①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되었다.
- ②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 ③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 ④ 세도 정치 시기에 외척 세력의 권력 기반이 되었다.
- ⑤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하성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정답: ⑤

* 비변사에 대하여

중종 때의 3포왜란(1510, 지변사재상 소집)과 명종 때의 을묘왜변(1555, 상설기구화) 같은 소란이 자주 일어나자 조선은 비변사를 설치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다(1517년 설치, 1555년 정식 관청).

비변사는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회의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점차 상설화 되고 구성원이 3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원으로 확대되었고(전·현 의정,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 대제학, 5군영 대장, 4도 유수), 그 기능도 군사 문제뿐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였다.

이와 같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의 제반 사무를 소수의 당상들이 회의하여 결정하자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세도정치기에는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유력한 외척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고종 때에 흥선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의정부와 비변사의 한계를 규정, 국정 의결권을 의정부에 이관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후 3군부(三軍府) 제도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폐지되었다(1865).

⑤ 고려 시대의 대간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으로 구성되었다.

27. 다음 조사 보고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조사 보고서 제출 안내

- ▶ 주제: 숙종 때의 정치적 변화 양상
- ▶ 조사 방법: 숙종 재위 시기의 정치 변화에 한정하여 조사함
- ▶ 분량: A4 용지 3장 이내
- ▶ 제출 기한: 2017년 ○○월 ○○일 17시까지

- ① 이조 전랑 임명 문제와 동·서 분당
- ② 서인과 남인의 대립으로 인한 환국
- ③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촉발된 기해예송
- ④ 세자 추숭(追崇)을 둘러싼 시파와 벽파의 갈등
- ⑤ 외척 세력인 대운과 소운의 대립으로 일어난 을사사화

정답: ②

* 숙종 대의 환국

숙종(1674~1720)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서인과 남인 사이에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일당 전제화).

환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정치 권력은 점차 고위 관원에게 집중 되었으며, 언론 기관이나 재야 사족의 정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봉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졌다.

경신환국(1680): 유약(기름먹인 장막) 사건을 빌미로(실제는 도체찰사 문제) 서인이 남인(허적, 윤휴 등)을 몰아내고 집권.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의 노론(강경론), 소론(온건론) 분화

기사환국(1689): 남인이 원자(장희빈 소생) 정함에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송시열 등이 사사됨.

갑술환국(1694): 인현왕후(서인 옹호) 복위 관련, 남인이 쫓기고 서인(노론, 소론) 재집권

① 선조(1567~1608) 때에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것에서 봉당이 시작되었다(1575).

③ 현종(1659~1674) 때에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과 관련하여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놓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두 차례의 예송(기해예송-1659, 갑인예송-1674)이 발생하였다.

④ 영조(1724~1776)의 처분으로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한(임오화변-1762) 이후, 집권 노론 세력은 사도세자에 대해 동정적인 시파와 원칙론을 고수한 벽파로 나뉘게 되었다.

⑤ 명종(1545~1567) 때에 왕위 계승을 놓고 외척인 소운(윤원형)과 대운(윤임)간의 권력 싸움과, 양편 모두에 사림이 가담하여 을사사화(1545)가 일어나 큰 희생을 당하였다.

28.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이 책은 균역법을 처음으로 시행한 이 왕의 명에 의해 홍계희가 편찬한 것이다. 균역법의 제정 배경, 부족한 재정의 보충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 등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양반 사대부들의 반대 여론에 대응하여, 균역법의 시행이 지극한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균역사실

〈보 기〉

- ㄱ.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ㄴ.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세웠다.
- ㄷ.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 ㄹ. 신해통공으로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①

* 균역법을 실시한 영조의 업적

탕평 정치는 영조 때(1724~1776) 자리잡았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탕평 교서(1725)를 반포하고, 탕평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양의 성균관에 봉당간의 다툼을 금하는 탕평비를 세웠다(1742).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봉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완론 탕평). 그리고 봉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론의 주재자로서 인식되던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아울러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고,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던 관행을 없앴다. 그러나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은 이후 정조대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정국이 안정되자, 영조는 민생 안정과 산업 진흥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균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균역법(양인의 군포 부담을 장정 1인당 2필에서 1필로 감축)을 시행하였고(1750),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속대전(1746)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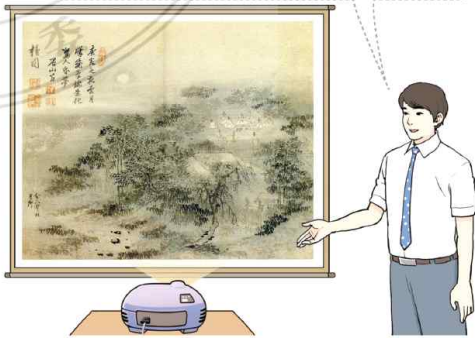
㉠ 흥선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고자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1865~1872).

㉡ 정조(1776~1800)는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는 통공 정책을 시행하였다(신해통공: 1791).

29.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이 그림은 김홍도가 중인들의 시사(詩社) 광경을 그린 '송석원 시사야연도'입니다. 당시 중인들은 시사를 조직해 활발한 문예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문화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 ① 성현 등이 악학궤범을 편찬하였습니다.
- ② 정철이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의 작품을 지었습니다.
- ③ 노래와 사설로 줄거리를 풀어 가는 판소리가 발달하였습니다.
- ④ 서거정이 역대 문학 작품을 선별하여 동문선을 편찬하였습니다.
- ⑤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습니다.

정답: ③

* 조선 후기 문화상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배경으로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서민의 경제적·신분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서민 문화가 대두하였다.

문학에서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최초: 홍길동전)의 보급은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 한글 소설은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현실적인 세계가 배경이 되었다.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설시조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을 거리낌없이 표현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중인층과 서민층의 문학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호인들이 모여 시사(詩社)를 조직하였다. 김삿갓, 정수동 같은 풍자 시인은 아예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 민중과 어우러져 활동하기도 하였다.

춤과 노래 및 사설로 서민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한 판소리와 탈춤은 서민 문화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창과 사설로 엮어가는 판소리는 흥보가, 춘향가 등이 유명하며, 탈춤과 산대놀이(가면극)에서는 지배층과 그들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승려의 부패와 위선을 풍자하기도 하였다.

회화에서는 그 저변이 확대되어 정선의 진경산수화와 김홍도, 신윤복 등이 그린 풍속화와 민화가 유행하였다. 음악과 무용에서는 감정을 대담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짙었다.

공예에서는 백자가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회회청 안료를 사용한 청화 백자가 유행하는 가운데 형태가 다양해지고, 안료도 청화, 철화, 진사 등으로 다채로웠다.

①, ④ 조선 전기 성종 때에 성현 등이 음악서인 '악학궤범(1493)'을 편찬하였고, 서거정은 삼국 이래로의 시문선집인 '동문선(1478)'을 저술하였다.

② 조선 중기 선조 때의 문신인 정철(1536~1593)은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과 같은 띄어난 가사 작품을 지었다.

⑤ 고려 말 우왕 때인 1377년 청주의 교외에 있던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금속 활자로 찍어내었다. 이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다.

30. 다음 자료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이현과 중루 그리고 칠패,
이는 도성(현양)의 3대 시장이라네.
온갖 수공업자가 다 모여 있고 사람들은 분주한데,
수많은 화물이 값을 다투며 수레가 줄을 이었네.
봉성의 털모자, 연경의 비단실,
함경도의 마포, 한산의 모시,
쌀, 콩, 기장, 조, 피, 보리
어떤 사람은 소에 실은 나무를 사려고 고삐를 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 이빨을 보고 나이를 알려고 허리에 채찍을 꽂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눈을 껌뻑이며 말 중개인을 부르기도 하네.
- 성시전도사 -

- ① 이양법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
- ② 상평통보로 토지를 매매하는 양반
- ③ 공명첩을 통해 면역의 혜택을 받은 상민
- ④ 한강을 무대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경강상인
- ⑤ 직전법에 의해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정답: ⑤

* 사상(私商)이 발달한 조선 후기 경제상

조선 후기에는 기존의 어용상인인 시전상인과 대동법으로 인해 나타난 공인(貢人) 외에도, 18세기 이후에는 사상(私商)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사상의 활동은 도성 중심의 종루 외에도 도성 외곽의 나들목인 칠패, 이현, 송파, 누원 등지에서도 활동하면서 시전의 상권을 잠식하였다

①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양법)이 널리 확대되었다. 농민들은 모내기법을 이용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였다.

②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서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동전인 상평통보(1678)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③ 임진왜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공명첩(空名帖, 돈을 받고 이름이 없는 관직첩을 줌)을 발급하자 상민(常民)들은 이를 이용하여 면역(免役)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④ 조선 후기의 선상(船商)인 경강(京江) 상인은 한강을 무대로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⑤ 조선 전기 세조 때에 직전법을 실시하여 수조권 지급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고 수신전, 홀양전 등을 폐지하였다(1466).

31.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윤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하였다.
- ②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 ③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들을 처형하였다.
- ④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선포하였다.
- ⑤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정답: ③

* 병인양요(1866.9)

흥선 대원군은 처음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하였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하여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청이 천주교를 탄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하여 흥선 대원군은 유생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866년부터 6년 동안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병인박해). 이로 인해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 여 명의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는 바로 이 병인박해 때의 자국의 선교사 처형을 구실로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다.

1866년 9월 프랑스군은 군함 7척에 수병 600여 명을 승선시키고 조선을 침략하여 한강을 봉쇄하였다. 그 중의 한 부대는 갑곶진에 상륙한 뒤 우수한 화력으로 강화읍을 점령하여 외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와 금, 은 등을 약탈해 갔다.

한성군이 지휘하는 군대는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김포 문수산성에서 방어하였고, 양헌수가 거느린 군대는 강화도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그 결과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 함대가 모두 퇴각하였다. 이 사건을 병인양요라고 한다(1866).

①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포함외교인 윤요호 사건을 일으켰다(1875).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1876).

② 병인양요 후 오페르트를 비롯한 서양인들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1868).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서양인들을 배척하는 기운이 더욱 거세어졌다.

④ 개항 이후 일본 상인들에 의한 쌀의 대량 유출과 흉년으로 곡물이 크게 부족해지자, 1889년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1883)에 따라 1개월 전에 외교 담당 관청에 통고하고 방곡령을 실시하였으나, 일본은 1개월 전에 자신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았다.

⑤ 갑신정변 후 청·일본·러시아·영국 등이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조·러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하였다(~1887).

32.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 ②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③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④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 ⑤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답: ④

* 위정척사의 대표적 인물 최익현

최익현(1833~1906)은 위정척사파의 대표적 인물로 일찍이 흥선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과 서원 철폐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하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강화도 조약(1876) 때에는 왜양일체론에 입각하여 지부복결(도끼를 메고 곁에 엎드림)의 5불가 척화 상소를 올렸다. 을미개혁(1895) 때에는 단발령에 맞서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며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을사조약(1905.11)이 체결되자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키어 지휘하다 체포당하였다. 결국 쓰시마 섬으로 유배되었고 단식 끝에 순국하였다.

①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1859~1925)은 1884~1919년의 독립투쟁의 역사를 다루며 국훈, 국백 사상을 역설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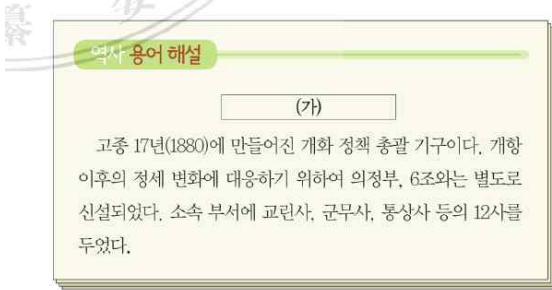
②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1851~1916)은 고종의 밀령에 따라 의병을 모아 1912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고 대한제국 재건을 추구하였다.

③ 홍범도(1868~1943)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되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대파하였다(1920.6)

⑤ 이인영(1867~1909)은 정미의병(1907) 때 관동창의대장이 되어 양주에서 각지 의병과 연합군을 조직하였지만(13도 창의총대장) 아버지의 별세로 군사장 허위에게 지휘를 맡기고 낙향하였으며, 작전은 결국 실패하였고 후일 부모의 묘를 성묘하다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체포되어 심문받을 때 그가 일경에게 말한 “불효는 불충이다”라는 말은 위정척사 항일의병의 한계를 보여준다.

33. (가) 기구를 통해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교원 양성을 위해 한성 사범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②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 ③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흥범 14조를 반포하였다.
- ④ 구(舊) 백동화를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 ⑤ 영선사를 파견하여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정답: ⑤

* 통리기무아문과 개화정책

강화도 조약(1876) 이후 고종은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1880.12) 그 아래에 12사를 두어 외교.통상.재정.군사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종래의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2군영으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신설하였다(1881).

외국 문물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박정양을 조사로 하여 젊은 관리들을(조사 시찰단) 일본에 파견하여(1881.4) 여러 정부 기구와 산업 시설, 문화 시설 등을 시찰하게 하였다. 이들은 귀국 후 각자 여행기와 시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었다.

또, 청에도 김윤식을 영선사로 하여 젊은 학생과 기술자들을 파견하여(1881.9) 텐진에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을 배우게 하였다. 비록 학생들은 근대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1년 만에 돌아왔으나 이를 계기로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세워졌다(1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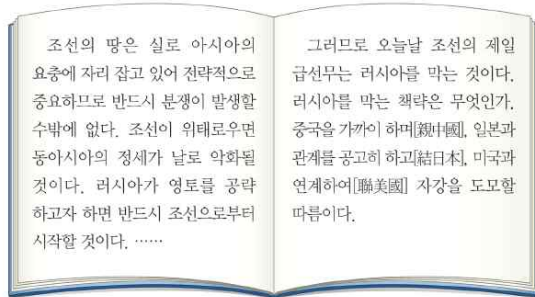
① 1895년 2월 반포된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정신에 따라 동년, 소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4월의 '한성 사범학교 관제를 공포하고 설립하였다.

②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에 구미 위원부(외무총장 김규식의 파리위원부도 포함)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1919.9).

③ 2차 갑오개혁(1894.12~1895.7)을 추진하며 국정 개혁의 기본 강령이라 할 수 있는 흥범 14조를 반포하였다(1895.1).

④ 러일전쟁 중 일본은 1차 한일협약(1904.8)에 따라 자국민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앉히고 재정 정리 사업과 화폐 정리 사업(1905~1909)을 추진하여 황실 재정을 해체하고 한국의 금융을 장악하였다. 화폐 정리 사업은 우리나라의 상평통보나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그 결과 국내 상공업자들과 민간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34. 다음 책이 유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이만손 등이 영남 만민소를 올렸다.
- ② 김기수를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하였다.
- ③ 어재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 ④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 ⑤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 정주성 등을 장악하였다.

정답: ①

* 조선책략과 영남만민소

러시아를 막는 방책인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을 담은 책인 황준센의 조선책략은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의 소개로 국내에 유포되었다(1880).

이 책이 지식인층에 유포되면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에서는 미국과의 수교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들은 ‘만민소’를 올려 ‘조선책략(러시아를 막기 위한 미.일과의 연대)’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상소 운동이 전개되었다. 강원도 유생 홍재학은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왕까지 규탄하였다가 처형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의 알선에 신뢰를 갖고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1882.5).

② 강화도 조약(1876.1) 체결 직후 조선 정부는 대일본 사절단의 수신사로 김기수를 파견하였다(18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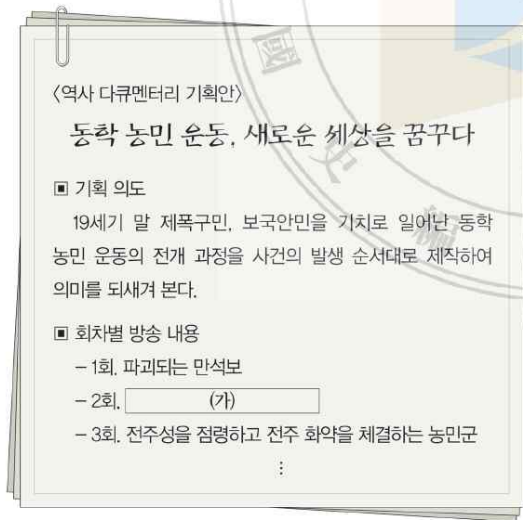
③ 신미양요 때에 미군에 맞서 강화도 광성보에서 어재연이 싸우다 전사하였다(1871.6).

④ 철종 때에 임술농민봉기(1862)를 진압하고, 민란을 바로잡고자 박규수의 건의에 따라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하였다.

⑤ 순조 때에 세도정치에 시달리고 서북민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대우에 반발하여 홍경래가 농민봉기를 일으켰다(1811). 이들은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없이 점거하며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정주성 싸움에서 패하며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3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되는 전봉준
- ②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는 농민군
- ③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하는 농민군
- ④ 논산에서 연합하는 남접과 북접 부대
- ⑤ 무력을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는 일본군

정답: ②

*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 (양력 기준)

<고부 봉기: 1894.2.17>

- 직접적 원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만석보 저수지 축조 문제)
-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 1천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 습격 → 만석보를 파괴하고 관리들을 징벌한 뒤 해산
- 정부는 조병갑을 탄핵(후임 박원명)하고 안핵사(이용태) 파견

<1차 봉기>: 1894.4.25반봉건, 남접 중심

- 안핵사(이용태)가 봉기 관련자를 역적으로 몰아 탄압

- 전봉준(총대장), 김개남, 손화중 등 무장 기포(4.25, 재봉기) → 고부 점령 →

각지 동학군 백산 집결(5.4, 백산 봉기, 4대 강령 선포)→

황토현(정읍)에서 감영군 격퇴(5.8), 황룡촌(장성) 전투에서 경군 격퇴(5.25)→

전주성(감사 김문현) 점령(5.31)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군 파견(아산만 상륙 6.8~12) → 텐진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일본군 파견(인천 상륙 6.7~12)

• 전주 화약 체결(6.11):

동학 농민군은 외국 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화친 →

농민군 개혁 추진을 위해 호남 각 지역에 집강소 설치 시작(6.11) → 정부 개혁 추진을 위하여 교정청 설치(7.13) →

일본의 궁성 침입(7.23) → 청일전쟁 발발(7.25)→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1차 갑오개혁 추진(7.27)

<집강소 시기: 1894.6.11.~10.10>

- 전라도 각 고을에 설치한 동학 농민군의 자치 기구
- 폐정 개혁안 실천 → 불량한 지주와 부호 처벌, 신분 질서 해체, 치안 유지

<2차 봉기: 1894.10.11.~12.31>, 남접+북접, 항일구국투쟁

-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7.23) 내정간섭, 개혁 강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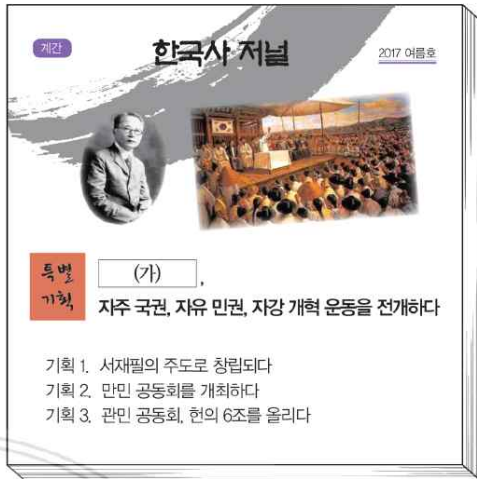
• 남접(전봉준:전라도)과 북접(손병희:충청도) 연합부대 형성(논산에 대본영 설치): 11월 초

•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퇴(12.11~18)→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 체포(12.30)

36.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②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③ 민립 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벌였다.
- ④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 ⑤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답: ④

* 독립협회

아관 파천(1896.2)으로 국가의 자주성은 손상되었고, 광산, 삼림 등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졌다.

갑신정변(1884)의 주역 중 하나였던 서재필은 중추원 고문으로 독립협회(1896.7)를 설립하고,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열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1896~1897) 자주독립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러시아의 간섭과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독립 협회는 자주 국권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 선언 상소문(1898.2)을 올리고,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1차: 1898.3)를 열어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군사 고문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고, 부산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으며 한·러 은행을 폐쇄하였다.

독립협회는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시켜, 광범한 사회 계층의 지지를 받는 단체로 발전하였다(자강개혁). 또, 독립협회는 자주 국권(이권 수호), 자유 민권(신체의 자유, 의회 설립과 국민참정권 추진) 등을 달성하려는 정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1898.10)를 결의하고 고종은 건의문을 받아들여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관제를 반포하였다(1898.11). 이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의회가 설립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활동은 의회의 설립과 서구식 입헌 군주제 실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 대립하였다(공화제 모함). 독립협회는 보수 세력이 동원한 황국협회의 방해를 받았고, 결국 3년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1898.12).

① 보안회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반대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

② 대한자강회는 1907년 고종 황제의 퇴위를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정미의병 때에 13도의 의병이 총 합류하여(13도창의군, 총대장 이인영) 각국 공사관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통보하고 서울로 단번에 진공하는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하였었다(1908.1).

⑤ 한국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인 민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상재 등은 1922년 조선민립대학기성회를 조직하고, '일천만이 일원씩'라는 구호와 함께 모금을 추진하였다.

37. 밑줄 그은 '사변' 이후 추진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고등 재판소에서 심리한 피고 이회화를 교형에 처하도록 한 안전을
법부 대신이 상주하여 폐하께서 재가하셨다. 피고는 사변 때 대권을
침범한 일본인들과 함께 아무런 직책도 없이 입궐하여 왕후 폐하가
시해당하시던 곤녕합에 들어갔다. 그리고 왕후 폐하가 시해당하신
뒤 얼마 안 되어 대군주 폐하 어전에 제멋대로 들어가서 대군주 폐하
께서 결정하시지 않은 조칙문을 베껴 썼다. 위의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각 증거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다.

-『고종실록』-

- ① 미국에 보병사를 파견하였다.
- ②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 ③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
- ④ 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 ⑤ 태양력을 채택하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정답: ⑤

* 을미개혁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조약(1895.4.17)을 체결하여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러시아·독일·프랑스의 삼국 간섭(1895.4.23)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하며 일본의 세력은 위축되었다.

이 틈을 타서 민비가 러시아와 연결하여 일본을 견제하려 하자,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켰다(민비 시해 사건, 1895.8). 이 사건 후 개화파 정부는 개혁 사업을 다시 추진하였다(을미개혁, 1895.8~1896.2).

을미개혁의 주요 내용: '건양' 연호 사용, 태양력 사용, 소학교 설치와 우편 사무 시작, 종두법과 단발령 실시, 군제 개편(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 설치)

① 개항 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1880.12),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2군영으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신설하였다(1881).

②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1882.5)에 따라 조선 주재 미국 공사가 파견되자 정부는 미국에 보병사를 파견하였다(1883.7).

③ 개항 이후 개화 정책에 따라 박문국을 설치하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1883)를 발간하였다.

④ 임오군란 직후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9)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명기하였으며 청상인에게 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와 내지 통상이 허용되었다.

38. (가)에 들어갈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학술 대회 안내

우리 학회는 (가) 11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의 경제 침탈에 맞서 거국적으로 전개되었던 (가) 을/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발표 주제

- 광문사 사장 김광제의 역할
- 논설 '단연보국채'의 내용과 영향
- 가족의 패물을 헌납한 조마리아의 애국 정신
- 통감부의 대응과 탄압

■ 일시: 2017년 ○○월 ○○일 13:00 ~ 18:00

■ 장소: △△대학교 대강당

기념비

- 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②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 ③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의 단체가 활동하였다.
- ④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하였다.
- ⑤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정답: ⑤

* 국채보상운동

대한제국은 통감부가 설치된 이래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각종 생활 시설 마련과 화폐 리 사업 과정에서 대한 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1,3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애국적 지식인들은 일본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 경제적 자주권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여겼다. 이에 국민의 성금으로 국채를 보상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1907).

이 운동은 대구 광문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그 후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결성된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로까지 확산되었다. 남자들은 금연으로, 부녀자들은 반지와 비녀를 모아 보상금으로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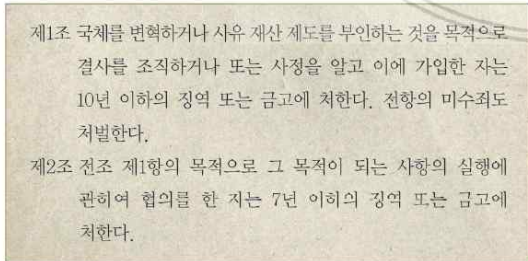
이에 대해 일제는 송병준 등 친일파가 지휘 하던 매국단체 일진회를 이용하여 방해하고, 통감부에서 국채보상회의 간사인 양기탁을 보상금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결국 양기탁은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국채보상운동은 더 이상 진전 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강렬하고 자발적인 애국정신이 발휘된 국권회복운동으로 평가된다.

①, ②, ③ 1920년대 초 민족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자립을 이루자는 물산장려운동은 조선물산장려회(1923)와 청년학생 중심의 자작회, 여성단체인 토산애용부인회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④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계획된 만세시위 운동은, 사회주의자 측의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음에도 학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는 진행되었다(1926년 6.10 만세운동).

39. 다음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박상진의 주도로 대한 광복회가 조직되었다.
- ② 전국적 조직인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 ③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 ④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⑤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정답: ①

* 치안유지법 제정(1925) 이후의 역사적 사실

치안유지법(1925~1945)은 일본제국과 식민지 전체에 적용되는 천황 통치 체제 및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법률로서 독립운동과 사회주의를 탄압(사상 전향을 강요)하기 위한 법령이었다.

① 박상진, 채기중 등이 1915년에 세운 비밀 결사체인 대한광복회는 군자금 모집, 선전 활동 등을 통해 전국으로 조직망을 확대하였고, 국권 회복을 위해 간도에 무관학교를 세우고 병사를 훈련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공화정부 수립을 지향하였다.

② 1927년에는 조선 노농 총동맹인 분화되어 노동 운동 단체로는 조선 노동 총동맹이, 전국적인 소작 쟁의를 지도할 농민 운동 단체로서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③, ④ 1920년대 중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한국인의 자치권을 얻자는 운동을 펼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완전독립론)자들은 조선민흥회(1926)를 중심으로 민족유일당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는 길을 모색하였다. 사회주의자들도 치안유지법(1925)을 제정한 일제의 탄압과 내부 분열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우회 선언'(1926)을 계기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협동체인 신간회가 창립하게 되었다(1927).

⑤ 일본인 기업의 착취에 저항하여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노동쟁의인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 1~4월에 일어났다

40.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판결문

주문(主文)

피고 이승훈·윤치호·양기탁·임지정·안태국·유동열을 각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理由)

피고 이승훈은 …… 안창호·이갑 등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대위·김유순, 그리고 러시아에 있던 김성무 등과 이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구(舊) 청국 영토 내에 있는 서간도에 무관 학교를 설립하고 청년의 군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 혹은 일본과 청국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 기회를 틈타 독립 전쟁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 ① 농촌 계몽을 위해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되었다.
- ③ 단원인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④ 독립 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 ⑤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 하였다.

정답: ②

* 비밀결사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등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여 조직된 비밀결사였다.

신민회는 국권의 회복과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국내에서는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의 건설에 의한 군사적 실력 양성(서간도 삼원보: 경학사,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을 꾀하다가 105인 사건(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이 날조되어 신민회 회원과 관련이 있는 안악 사건으로 확대되어 105인이 기소된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관련 활동으로 언론으로는 양기탁의 대한매일신보, 교육으로는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 등이 있으며 산업으로는 평양의 자기회사, 대구의 태극서관 등을 설립하였다.

①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이란 이름을 내세워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했는데, 여름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고 교재를 공급하였다.

③ 1932년 1월 한민애국단 소속의 이봉창(1900~1932)은 도쿄에서 일왕 마차에 폭탄 투척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④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재정 마련을 위해 애국 의연금 수집 외에도 애국(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⑤ 임병찬고종의 밀지를 받고 전국 곳곳의 의병장과 유생들을 모아 1912년 결성한 비밀결사인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 이념에 따라 국권을 회복한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전국적인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총리대신과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하던 중에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었다(1914.5).

4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태극 서관 운영
- ② 국문 연구소 설립
- ③ 최초의 한글 신문 발행
- ④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 ⑤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 간행

정답: ④

* 조선어학회

1907년에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져 주시경(‘국어문법’ 저술, 1910), 지석영 등의 주도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3·1 운동 이후 임경재, 장지영 등의 주도로 조선어 연구회가 창립(1921)되면서 국어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한글 연구와 더불어 강습회를 열어 한글 보급에 노력하였다. 또, 한글 기념일인 ‘가갸날’(1926)을 제정하여 우리말 쓰기를 권장하였고, ‘한글’(1927)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여 한글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193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확대 개편되어 한글 강습 교재를 만들어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더욱 활발한 한글 보급 활동이 전개되었다.

조선어 학회의 가장 큰 성과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의 제정이었다(1933). 이를 바탕으로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 하였지만, 일제의 방해(조선어학회 사건)로 중단되었다(해방 이후인 1957년에 간행).

또한 일제는 조선어 학회를 독립 운동 단체로 간주하여(정태진 관련) 관련된 인사들을 체포하고,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를 조선어 학회 사건(1942)이라 한다. 이 때 이윤재와 한징은 옥사(獄死)하였다.

① 신민회(1907~1911)는 산업 육성을 위해 평양의 자기회사, 대구의 태극서관 등을 설립하였다.

③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간한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1896.4~1899.12)은 최초의 한글신문이며 독립협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다.

⑤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는 개벽(1920), 신여성(1923), 어린이(1923), 학생 등의 잡지를 간행하며 문화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42.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 ② 조만식, 이상재 등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 ③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였다.
- ④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고종의 인산(因山)을 기회로 삼아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

정답: ③

* 1920년대 형평운동

갑오개혁(1894) 때 신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동안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백정도 평등한 지위를 얻었으나 백정 출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는 일제 강점기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총독부는 새 호적을 만들면서 백정 출신을 호적에 '도한'으로 써 넣거나 붉은 점을 찍어 차별하였다. 학교 입학 통지서에도 백정 신분을 밝힘으로써 입학이 거부되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일도 많았다.

이에, 백정 출신들은 경상 남도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창립하고(1923),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 운동을 펼쳐 나갔다. 그러나 아직도 신분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대중은 여전히 백정 출신을 차별하였으며, 형평 운동에 반대하는 반형평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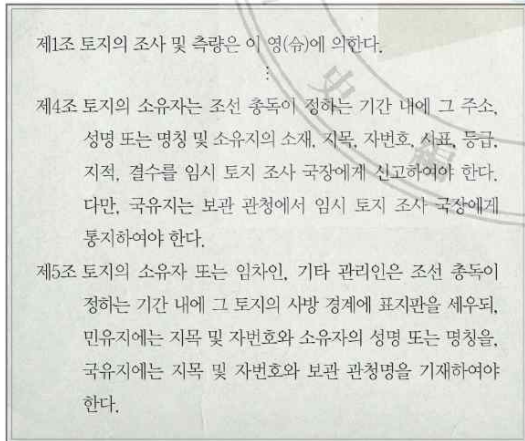
①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는 기관지로 만세보(1906)를 발간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

② 이상재, 조만식 등이 1923년 조선민립대학기성회를 조직하고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추진하였다

④, ⑤ 고종의 인산일을 맞아 거족적으로 일어난 만세시위 운동인 1919년의 3.1 운동은, 일제가 1920년대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43.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증대되었다.
- ② 지세아문이 실시되어 지세가 발급되었다.
- ③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농업 이민이 증가하였다.
- ④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늘어났다.
- ⑤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보유 토지가 확대되었다.

정답: ②

*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1910년에 시작된 토지조사 사업(1910~1918)은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총독부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한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일제는 이 빼앗은 토지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넘기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소작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었고, 기한부 계약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이 늘어났다. 총독부는 지세부과 대상을 크게 늘리고 토지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토지세를 더 많이 거두어들이며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대부분 식민통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또한 토지의 상품화를 가능하게 하여 일본인의 토지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인 농업 이민과 지주가 증가하였고,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간도, 연해주나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② 대한제국은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아문(1901)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물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4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강도(強盜)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大本營(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약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산을 건설할지니라.

- ① 민족 대표 33인이 선언에 참여하였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이었다.
- ③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의 요청으로 작성되었다.
- ④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도쿄에서 발표되었다.
- ⑤ 독립 청원을 위해 파리 강화 회의에 제출되었다.

정답: ③

* 조선혁명선언(1923)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1880~1936)가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1898~1958)의 부탁으로 1923년 1월에 발표한 조선혁명선언(일명 의열단 선언)에서는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문화주의·외교론·준비론 등의 입장을 비판하며 일체의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독립노선을 제시하였다.

①, ④ 일제의 무단통치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던 민족지도자들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제창된 민족자결주의와, 도쿄에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발표된 2·8 독립선언에 고무되어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민족대표(종교 지도자)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국내외에 독립을 선언하였다(1919. 3.1).

②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광복을 앞두고 분열된 민족운동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었다.

⑤ 1918년 상해에서 결성된 신한청년단 소속의 김규식은 1919년 2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여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4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보재(溥齋) 이상설 선생의 항일 투쟁	
활동 지역	주요 활동
국내(서울)	을사늑약 체결 비판과 을사 5적 처단 상소
간도	서전서숙 설립과 민족 교육 실시
네덜란드(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파견되어 을사늑약의 부당성 폭로
미국	애국 동지 대표자 회의 참석과 국민회 결성에 기여
러시아(연해주)	(가)
중국(상하이)	신한 혁명당 결성과 외교 활동

- ① 승무 학교 설립과 무장 투쟁 준비
- ② 한인 애국단 결성과 항일 의거 활동
- ③ 권업회 조직과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
- ④ 한국 광복군 창설과 국내 정진군 훈련
- ⑤ 국민 대표 회의 참여와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활동

정답: ③

* 이상설(1870~1917)에 대하여

그는 일찌기 1904년 일제의 황무지개간요구 반대상소를 올려 관철시켰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병세 등과 협의, 조약의 무효를 상소하고 자결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06년 북간도 용정에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일으켰으며, 헤이그 특사 사건(1907)의 일원(이준, 이위종, 이상설)으로 활약함이 유명하다.

국권 상실 이후에는 만주.연해주 접경지역인 밀산부 한흥동에 독립기지를 건설하였고, 이후 러시아 연해주에서 13도의군, 성명회 조직에 참여하였고, 신한촌(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교포단체 권업회(1911)를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정(軍政) 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1914)를 이끌었다.

그러나 1915년 러시아 정부의 탄압으로 연해주를 떠나 상해로 이동하여 북경의 성낙형 등이 주도하여 결성된 신한혁명당에 합류하여 신규식 중심의 상해지역 공화주의 세력과 이상설 등 만주·노령지역 입헌군주제를 선호하는 인물들 간의 연합이 실현되었고, 후일 임시정부 수립의 모태가 되었다.

① 멕시코 한인교포를 이끌던 이근영은 메리다 지방에 승무학교를 설립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1910).

② 임정의 침체기를 돌파하기 위해 김구가 1931년 결성한 한인 애국단 소속의 이봉창과 윤봉길은, 각각 도쿄와 상하이에서 일본 국왕에게의 폭탄 투척(1932.1)과 홍커우 공원에서의 폭탄 투척(1932.4)을 이끌어냈다.

④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주 교민들과 중국 국민당 장개석의 후원을 받아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고(1940.9, 사령관 지청천), 해방 직전 미국 OSS(전략첩보국)와 정진군을 이끌고 국내로 진공하고자 하였으나 예상보다 빠른 일제의 항복으로 무산되었다.

⑤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노선이 거듭 실패하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놓고 국민대표회의(1923)가 열렸지만,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 속에 결렬되며 긴 침체기에 들어갔다.

46. 다음 협정이 적용된 시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를 방지하며 국력 부흥을 촉진하고 국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미합중국 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원조를 제공할 권한을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부여하였고,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과 안전 보장에 합치되는 조건에 의한 그 원조의 제공이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 간의 우호적 연대를 일층 강화할 것을 확신하므로 아래와 같이 협정하였다.

- 한·미 원조 협정 -

- ① 경부 고속 국도를 개통하였다.
-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③ 제분·제당·면방직의 삼백 산업이 성장하였다.
- ④ 3저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하였다.
- ⑤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정답: ③

* 한미원조협정이 적용되던 1950년대 경제

- 한미원조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0월 한국의 경제적 위기 방지와 안정을 위해 미국의 경제적 원조를 명문화한 협정으로 1961년 2월까지 존속하였다.

-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도로, 철도 등 물류 교통 시설이 파괴되었고, 제조업도 생산 시설의 절반이 파괴될 정도였다.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은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는데, 원조는 주로 식료품, 농업 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제분, 제당, 방직 공업 등 소위 삼백 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산업이 발달했지만 철강, 기계 등의 생산재 공업은 저조하였다. 또한 밀과 면화 농업이 몰락하는 등 토착 농업의 발전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①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경부 고속국도(1968~1970)가 건설되었다.

②, ⑤ 1990년대의 김영삼 정부 때에는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1993), 성급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1996) 등 시장개방 정책을 실시하였다.

④ 1980년대 중후반 전두환 정부 때에는 3저(저금리, 저물가, 저환율)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늘어났다.

47. (가)~(다)의 전선을 전쟁이 진행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점]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가) - (나)

정답: ⑤

* 6.25 전쟁의 전개과정

이승만 정부는 출범 초기 좌익 게릴라 활동, 실업과 물가폭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였다. 더욱이 미군이 철수하고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선언(1950.1)이 나오는 등 국제정세도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 하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운 우세한 전력으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뒤 파죽지세로 남하하였다.

국제 연합에서는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국을 지원하는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하여 16개국의 연합군이 참전하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연합 작전을 전개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했는데, 8월에 이르러 마산에서 낙동강을 따라 왜관을 거쳐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유엔군은 우세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북한군의 공세를 낙동강 전선에서 저지하고,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으며, 10월 1일 38도선을 돌파하여 10월 말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10월부터 압록강을 건너 참전한 중국군의 대공세에 밀려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여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 평택까지 밀렸던 국군과 유엔군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5월 중순경에는 38선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이후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의 제안에 따라 미·소 양국은 휴전 회담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과 중국군 및 북한군은 1951년 6월부터 정전 회담을 개최하여 2년여 간 협의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휴전에 반대하여 정전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고, 정전협정 체결 전에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1953.6.18.).

결국 1953년 7월 27일 비무장 지대 설치,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휴전 협정을 체결하였다.

48.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임시 대회에서 중국군과 합작하기로 결의한 뒤, (가)의 총사령 지청천은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독립군을 소집하였다. 그 결과 인원이 60명에 달하였다. 이를 일대(一隊)로 조직 편성하여 지린성 자위군 왕즈웨이[王之維]가 인솔하는 약 10만 군과 연합하여 싸우다가 헤이룽강으로 향하였고 지청천은 아칭[阿城]으로 약 400명의 독립군을 인솔하고 되돌아왔다. - 이규채 신문 조서 -

- ①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 ②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 ③ 중국 관내(關內)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 ④ 남만주 지역에서 결성된 조선 혁명당의 군사 조직이었다.
- ⑤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정답: ①

* 1930년대 한국독립군의 활약

일제가 만주 사변(1931)을 일으키고, 이듬해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1932)하여 만주 일대를 장악하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독립군은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항일 의식이 고조된 중국군과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남만주 지역에서 국민부를 모태로 하여 조선 혁명당의 군사조직으로 1929년 설립된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나 조선혁명군은 1934년 양세봉이 살해당하고, 간부들이 체포, 처형당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북만주에서 1931년 결성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1888~1957)의 지휘 아래 중국군과 연합하여 토일군(구국군 또는 호로군)을 조직하였다. 토일군은 쌍정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후 전리품 문제와 만주에서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중국군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김구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 정부에 합류하였다.

②, ⑤ 1920년 10월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과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 등 만주 지역의 제 독립군들은 일본군에 청산리 대첩을 일구어 냈다. 그러나 그해 말의 간도참변으로 인하여 소련의 지원을 믿고 이동키 위해 만.소 접경지역인 밀산부에 모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1920.12, 총재 서일), 이듬해 연해주 자유시로 근거지를 옮겨갔으나 독립군의 지휘권을 놓고 이르크츠파와 상해파 공산당 간의 갈등 속에 자유시 참변(1921년 6월, 소련군에 의해 무장해제 되는 과정에 다수가 참살됨)을 겪었다.

④ 1935년 중국 관내에서 민족유일당으로 형성된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민족혁명당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우한에서 중국 관내에서 최초의 무장 한인 부대인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

49.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곳은 이승만의 장기 독재에 저항하여 일어난 (가) 당시 희생된 김주열 열사의 묘소입니다.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던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② 4·13 호헌 조치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 ③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 ④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와 무력 진압에 항거하였다.
- ⑤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하여 유신 체제에 저항하였다.

정답: ①

* 4.19 시민혁명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3.15 부정 선거),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3.15 마산 시위, 김주열 사망)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경무대 앞 시민·학생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발포로 130여명 사망).

4월 25일에는 서울 시내의 대학교수단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위하였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4월 26일 이승만은 결국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이로써 이승만 정부는 붕괴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구성된 허정 과도 정부(1960. 4.27~ 8.12)는 부정선거를 계획한 정부 각료와 자유당 간부를 구속하였다. 국회는 6월 15일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7월 29일,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당선되었다. 이후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1960.8.12.).

② 전두환 정부의 1987년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는 6월 민주 항쟁의 원인이 되었다.

③ 박정희 정권기인 1964년 굴욕적 한일회담에 학생과 시민들이 반대하여 서울에 계엄령이 발동되는 6.3 사태가 발발하였다.

④ 1980년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발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다.

⑤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재야 정치인, 종교인, 대학 교수 등은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는 3.1 구국 선언(1976)을 발표하였다.

50.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3.

- ①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②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실시하였다.
- ③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④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 ⑤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정답: ②

*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회담을 열었다.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핫라인) 가설과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에는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1985. 9.).

1990년 전후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는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남북 기본합의서, 1991.1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수재로 식량난을 겪자 쌀을 무상 지원하였으며,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현재 중단).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민간 차원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방북한 것을 기점으로 금강산 관광이 이어졌다(1998). 그리고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이후 경의선 연결(2000.9.18~2002.12.31. 남측 완료),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이어받아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2차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고 적극적인 대북 협력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과 이명박 정권 이후 상호주의 기조 아래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